개헌 제안에 경제는 '뒷전'

노동개혁 4법 등 핵심 정책 표류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큰 파급 전망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전격 제안으로 각종 현안이 산적한 우리 경제도 적지 않은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개헌의 찬반 및 향후 권력 구조를 둘러싸고 정국이 요동치면서 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등 경제 이슈들이 주요 관심사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정치권의 개헌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개헌이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빨아들여 경제·민생 과제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경제 상황을 이유로 개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때는 "나라가 한 치 앞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을 말하는 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처해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풀면서 말을 해야지 염치가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라며 "경제가 살아났을때 국민들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를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제안을 하면서 이전과는 180도 다른 근거들을 제시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임금피크제, 크라우드 펀딩, 계좌이동제, 자유학기제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해 매진해 왔다"며 "이런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지만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개헌 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노동개혁 4법 등 핵심 정책 현안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들은 이해관계자 등의 반대에 가로 막혀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출한 노동개혁 4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반대 속에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중점 법안들도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경기 상황도 좋지 않다.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연속으로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5번의 금리 인하를 한 점을 감안하면 초라한 수치다. 미국의 금리인상, 브렉시트, 북핵 문제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산적해 있다.

3개년 계획의 성과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 성과 지표 중 상당수는 지난 2013년보다 나빠졌거나 2017년 목표치에 크게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13년 34.3%에서 2015년 37.9%로 높아져 2017년 목표(35.6%)를 이미 넘어섰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60.3%에서 169.9%로 높아져 160대 초반을 유지한다는 목표에서 멀어졌다.

청년 일자리 창출 목표는 2017년까지 누적 50만개였지만 2015년 6만8000개를 만들어내는데 그쳤다.

청년 고용률은 41.5%(목표 47.7%), 여성 고용률은 55.7%(목표 61.9%)에 그쳐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경우 부실 기업·업종 구조조정, 4대 개혁, 가계부채·부동산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시스

"무섭나?" 할로윈데이를 일주일 앞두고 롯데마트가 24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롯데마트 구로점에서 '해피 할로윈' 대전을 알리고 있다.

롯데그룹 지배구조 전환 '본격화'

롯데쇼핑·롯데제과·롯데칠성 수혜 전망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지배구조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이 과정에서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등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조만간 혁신안을 내놓고 지배구조 전환을 비롯한 조직개편 및 사업재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그룹 지배구조 측면에서 한국롯데의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의 상장은 필수적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호텔롯데가 상장되면 일본 롯데 계열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동빈 회장이 지배구조 변환을 주도하면서 한국롯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명분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신동빈 회장이 한국롯데의 확실한 오너가 되기 위해서는 호텔롯데 지배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신동빈 회장이 롯데스트래티직인베스트먼트 주식 취득으로 L투자회사 등을 통해 호텔롯데를 지배하거나 L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호텔롯데 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방법 중 선택의 기준은 전적으로 롯데스트래티직인베스트먼트와 호텔롯데의 기업가치에 달렸으며, 인수방법은 신동빈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패션업계 '브랜드 가치'로 불황탈출 사활 걸어야

장기 불황으로 인해 패션업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패션업체들은 브랜드를 철수하고, 비효율 매장을 정리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안간힘이다.

이런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은 패션업계 생존을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는 이에게 만족을 주는 옷은 팔린다는 이야기다.

24일 송하연 HMC 투자증권 연구원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저가의 합리적인 의류 소비가 증가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가지고 싶은 브랜드를 보유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패션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심한 불황기에도 예쁜 옷은 팔린다"며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브랜드는 생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여타 브랜드가 줄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하는 업체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의류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파워를 가진 업체들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섬은 올해 2분기 매출 1452억 2700만원, 영업이익 80억77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4%, 102.5% 증가한 실적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도 같은 기간 매출 2360억원, 영업이익 75억원을 달성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9%, 104% 증가한 수치다.

/뉴시스

익산 왕궁물류단지 반대 주민 설득 나서

익산시 시민토론회에 참여해 지역소상공인들과 상생방안 마련

민간사업자가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시민토론회에 참석한다.

24일 왕궁물류단지㈜에 따르면 익산시가 오는 26일 개최하는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선다.

사업자 측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왕궁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익산지역의 경제적 일자리 창출, 다양한 혜택 등을 시민에게 알려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규모 아울렛 입점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18일 예정됐던 1차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 시민의견 청취를 회피하고 있다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 동참,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이번 사업의 타당성을 시민다수의 여론을 주도하고 이를 근거로 익산시를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주 측의 이 같은 방침은 시가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왕궁물류단지 조성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왕궁물류단지㈜ 관계자는 "1차 토론회 불참으로 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며 "토론회를 바탕으로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 마련은 물론 사업 추진을 위한 익산시와의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자랜드 삼성제휴카드 출시 6주년 이벤트

카드포인트 100% 결제도 가능

전자랜드프라이스킹이 삼성카드와 제휴한 '전자랜드 삼성제휴카드'의 출시 6주년을 기념해 빅세일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자랜드 삼성제휴카드'는 제품 구매 시 청구할인과 추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포인트 적립 혜택뿐만 아니라 삼성카드 포인트로 100% 결제까지 가능해 전자랜드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세일의 오감만족 호주여행 경품행사에는 삼성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자동으로 응모되며, 당첨자 1등 1명에게는 호주 여행권(2인), 2등 1명에게는 안마의자, 3등 10명에게는 켄싱턴 리조트 숙박권, 4등 18명에게는 전국 스파 및 워터파크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삼성제휴카드 사용고객과 신규 발급고객을 위한 행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또한 삼성제휴카드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프리미엄 행사모델을 10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베트남 골프여행권을 증정한다.

아울러 김장철을 맞아 김치냉장고 행사도 진행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대유위니아의 김치냉장고 중 행사모델 구입 시 삼성제휴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캐시백 또는 24개월 무이자 혜택등 제공한다. 또한 기존 전자랜드 삼성제휴카드 사용고객 중 문자수신고객에 한해 30만원 이상 구매 시 10만원 한도 내에서 3%추가 캐시백을 증정한다.

/뉴시스

G9, 쇼핑 편의 향상 사이트 개편

종합쇼핑몰 G9가 24일 고객의 쇼핑편의 향상을 위해 사이트를 전면 개편했다.

G9는 쉽고 간결한 구조의 '미니멀리즘'을 콘셉트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새롭게 단장했다. 온라인 쇼핑을 처음하는 고객도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 프로모션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가장 큰 변화는 쇼핑 카테고리를 확장한 것. 기존 7개의 상품 대분류를 17개로 세분화해 고객들이 검색과 카테고리 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상품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UI도 통일했다. 조금은 다르게 보였던 두 사이트를 통일화해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일관된 사이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